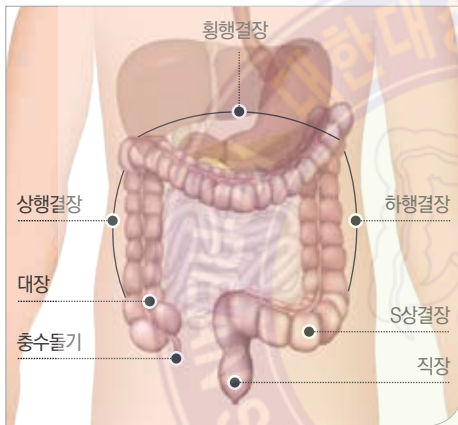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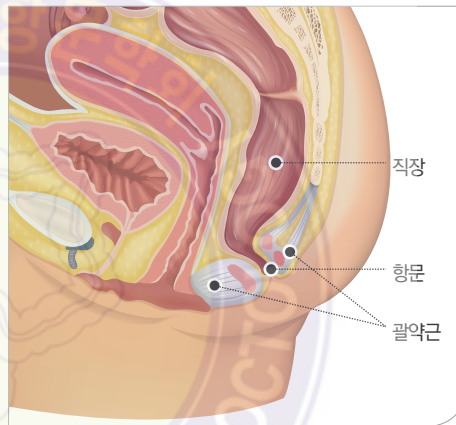
01. 대장암이란 무엇인가요?



대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림 1] 대장의 구조



[그림 2] 괄약근의 구조

음식물의 소화와 배출을 하는 소화기관은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결장 및 직장)을 지나 항문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 소화기관의 하나인 대장은 복부에 위치하며, 크게 결장과 직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하면, 결장은 소장의 회맹부와 맹장, 상행결장(우측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좌측결장), 에스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결장과 연결되는 직장은 복강내와 후복강의 직장으로 나누어지고, 직장은 항문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에게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장의 길이는 대개 약 150cm, 지름은 5cm 정도이며, 직장의 길이는 약 15cm 정도입니다 [그림 1].

대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장은 소장을 통과한 소화된 내용물이 결장에 도달하면 수분 및 전해질을 흡수하고, 직장 에서 대변을 완성하여, 보관하고 양이 많아지면 항문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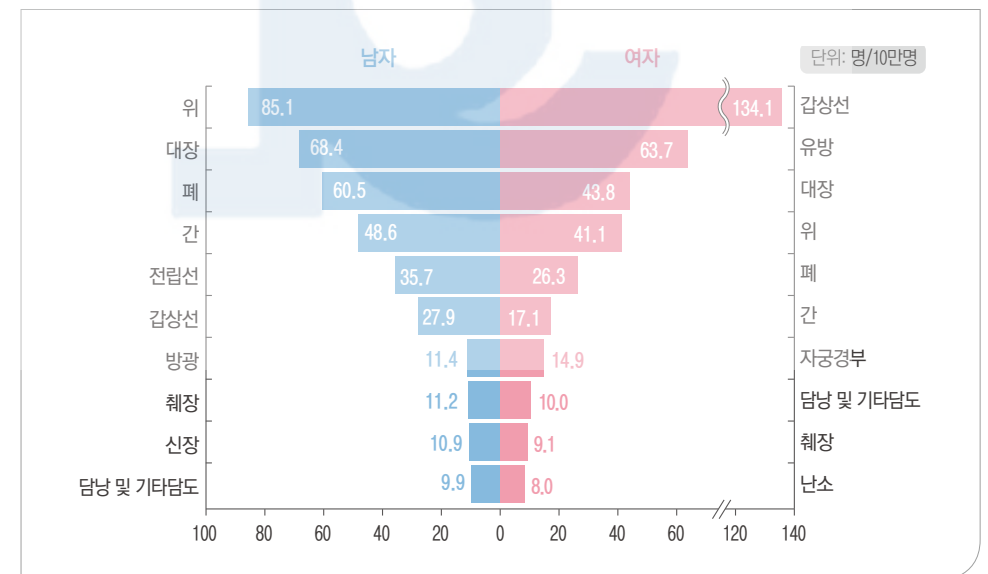
대장암은 모두 한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대장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대장암이란 병은 선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종	선암은 대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의 점막층에서 발생하며, 선암은 선종이라는 양성 종양(흔히 폴립, 용종)에서 암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것과 유전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림프종	주로 소장의 마지막부분인 회장에 잘 발생함.
육종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전형적인 피부 병변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유암종	충수돌기와 직장에 주로 발생하며,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대장암이란 무엇인가요?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선암)으로 대부분 점막에서 발생하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직장암 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초기 악성 종양에서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예방적 대장검사가 조기 진단과 완치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림 3] 성별 10대 암 조발생률: 2011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현황

2011년에 기준으로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8,017건의 암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서 28,112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9%로 갑상선암, 위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1.8: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건수는 남자가 17,157 명으로 남성의 암 중에서 위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여자도 10,955건으로 여성의 암 중에서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가 암정보센터 자료, <http://www.cancer.go.kr/mbs/cancer/index.jsp>).

